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0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9.(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0. 19.(화)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총괄)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CPTPP, FTA) 국표원 국제표준협력과(기술표준)
담당과장	고상미 과장(044-203-5620) 김호철 과장(044-203-5740) 이용현 과장(043-870-5350)	담 당 자	형건우 사무관(044-203-5826) 박수정 사무관(044-203-5741) 김창용 연구관(043-870-535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기술-통상"의 핵심 의제로서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구체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태지역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0.19(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CPTPP 동향 및 대응방향,** ②**한-필리핀 FTA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③**기술선도 경쟁 시대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은 붙임1 참조

○ 안건 ① **「CPTPP 동향 및 대응 방향」**

- 최근 중국(9.16)과 대만(9.22)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아태 지역 내 통상 질서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금번 여 본부장의 유럽 출장(10.4~14) 중 CPTPP 주요 회원국과 최근 동향 및 우리의 가입 관련 협의를 하였는 바,

- 금번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동 **협의 내용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

○ 안건 ② **「한-필리핀 FTA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FTA 협상을 마무리**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

○ 안건 ③ **「기술선도 경쟁 시대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 여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9.2)에서 기술통상 분야를 포함한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통상교섭본부 내 공급망·기술통상 TF를 설치하고,

- 특히, **글로벌 표준 선점은** 신기술 주도를 통해 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통상"의 핵심 어젠다*인 바, 공급망·기술통상 TF**를 통해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기술 선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 각국의 기술 경쟁, 코로나 이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이 통상 이슈와 연계되어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신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동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K-방역·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경쟁력, 3대 공적 공적표준화기구 진출 현황, 미·유럽·아시아 표준강국과의 협력 채널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표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을 모색**

* i) 디지털기술·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ii) R&D 표준연계 등 표준화기반 강화, iii) 전략적 표준 협력 파트너십 구축, iv)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

※ (붙임 1)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붙임 2) 안건 ③「기술선도 경쟁 시대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주요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형건우 사무관(☎ 044-203-56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유럽 · UAE 방문 결과】

□ 지난 10.4~14일간 **유럽 5개국**(독일·프랑스·스위스·벨기에·이탈리아)**과 UAE**를 방문, ‣ OECD, WTO, G20 등 **다자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 20여개국과의 **양자회담, 투자유치,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

* (다자) 코로나19 극복,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개혁의 로드맵 제시
* (양자) 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 FTA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

□ 글로벌 통상체제에서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체감**하는 한편, 무역으로 성장한 성공적 아이콘으로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많다고 느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 9월 미국, 10월 유럽 출장을 통해 **공급망·기술통상·기후변화·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체감

□ 특히,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도** 더욱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공급망과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통상기술 협의회(TTC) 1차 회의 개최**(9.29) 등 유사입장국 간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술보호, 국제기술표준 선점 등을 위한 주요국 행보도 본격화

○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9.16)과 대만(9.22)**이 경쟁적으로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역내 통상질서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

□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통상측면에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시대적 요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특히,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해 **기술-통상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신시장 확보, 국제기술 표준 선점**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가 시급**

【논의 안건】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필리핀 등)과 **CPTPP 동향 및 대응방향,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으로 허심탄회한 토론을 기대함

붙임 2 안건③ 「기술선도 경쟁시대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주요 내용

1. 배 경

○ **(기술·표준 경쟁)** 美·中 등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선도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 강화**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 경쟁 중**

○ **(기술·공급망-통상과 표준)** 각국 통상정책에서 **기술·공급망에 대한 고려**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 활용**

2. 비전 및 목표

○ **(비전) 대한민국이 만든 기준의 국제표준화**

○ **(목표) 4대 중점과제**(하기 "추진과제")**를 통한 新시장 확보**

3. 추진 과제

① 〔과제 ①〕 디지털기술 ·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 **디지털, 탄소중립, K-방역 등 보건, 서비스** 등 분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리드**

❶ **(디지털 등)** 자율차, 스마트제조, 반도체·AI, 5G, 빅데이터 등 표준 **300종 제안**(~'23)
❷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 등 **100종 표준 개발**(~'50)
❸ **(보건)** K-방역 관련 감염병 검사·추적·치료에 대한 **국제표준 18종 제안**(~'22)
❹ **(서비스)**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등 **100종 표준 개발**(~'25)

【 우리나라 표준화 현황 】

■ 우리가 강점을 가진 **K-방역·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한 **국제표준 제안 순위는 상위 유지**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 제안수**('20) : **①(中)56**, **②(韓)21**, ③(獨)15, ④(日)12 **⑤(美)7**

[표준화 대표 사례]
- **(보건)** 방역 국제표준 18종 개발, 한국 주도로 ISO 내 팬데믹 대응 작업반(WG) 신설
- **(반도체)** TC47 간사국으로서, 시스템반도체 AI 반도체 표준화 개발 주도
- **(배터리)** 소재 관련 TC333에서 최초 표준 제안, 소재 분석 분야 컨비너 수임 추진 중

② **〔과제 ②〕 R&D 표준연계 등 표준화 기반 강화**

- 핵심 산업 분야의 **적기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R&D 기획시 표준 선행조사** 및 **표준전략수립** 등 **R&D 표준연계 강화**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시행('21.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 시행('21.1월)에 따라 KSA·KRISS·TTA 3개 기관을 표준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 **스타트업·중소기업** 표준화 활동지원을 위한 **표준화 매치업(Match Up) 사업**, 표준 전공자 고용연계 **인력양성** 등 국**내 산업계 표준역량 강화**

③ **〔과제 ③〕 전략적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 우리나라 표준화 강점 분야(K-방역·반도체·배터리 등)를 활용하여 **미국·유럽·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신북방·신남방,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협력 추진

④ **〔과제 ④〕 글로벌 리더십 구축**

- WTO 內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공적 표준화기구**(ISO·IEC)에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 및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 ISO·IEC 의장단(의장・간사・컨비너) : '20년 237명에서 점진적 확대

- 디지털기술 등 新시장을 빠르게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화 대응을 위해 **「(假)사실상 국제표준포럼」 신설** 및 **기업 표준화 활동 지원**

【 우리나라 표준화 위상 】

■ 우리나라는 3대 **공적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이사국**이며,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간사국 확보 순위는 10위**

< ISO·IEC·ITU '20년 주요 지표 >

ISO 간사 확보			IEC 간사 확보			IEC 국제표준 제안			ITU 의장단 진출		
순위	국가명	간사	순위	국가명	간사	순위	국가명	제안	순위	국가명	의장단
1	독일	128	1	독일	36	**1**	**중국**	**56**	**1**	**중국**	**22**
2	**미국**	**103**	**2**	**미국**	**26**	**2**	**한국**	**21**	2	러시아	18
3	영국	77	3	일본	24	3	독일	15	**3**	**한국**	**17**
6	**중국**	**63**	**7**	**중국**	**11**	4	일본	12	4	일본	12
10	**한국**	**19**	**10**	**한국**	**9**	**5**	**미국**	**7**	**5**	**미국**	**10**

4. 기대 효과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국제표준 선점으로 **통상 주도권 확보**

○ **첨단기술 분야 표준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관련 세계적 요구에 대응하여, **디지털기술・탄소중립 표준화 선도**